

“모 세”

히브리서 11:23-29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삼중 직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1.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히 11:23)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왕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젖먹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젖 떼 때까지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부터 늦으면 7살까지를 ‘젖 떼는 때’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격형성의 시기이자, 사람으로서의 기본기가 가장 풍성하게 다져지는 기간동안 모세는 그의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 장에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헌장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4-9)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40 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

례와 법도를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한 2 세들에게 전해 주었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준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4,200 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과 십일조 생활을 통해 바른 재정관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 40 년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something)’ 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 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nothing)’ 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 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everything)’ 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something)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 년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nothing)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권능자(everything)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배웠다, 더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십 보 백 보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차이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느냐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모든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할 수 없다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을 때,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 이면에 80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준비 과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자신의 소명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자아를 꺾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자기의 능력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혈혈단신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4. 뼈아픈 모세의 실패

므리바에서 모세는 뼈저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자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지 반석에게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 20:12)

모세의 두번째 실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는 약속의 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치라고 하셨지만, 그는 인간적인 말에 이끌려 주저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닌,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는 했으나, 정작 그 스스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만 본 채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뼈아픈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신 3:25-26)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신앙은 결코 양보되고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1.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3.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과정을 거치는데 첫째가 긍정적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자기의 의를 꺾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이것만은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일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의 세번째 교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의 여러 교훈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